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4 정기총회

2014.2.8



# 식 순

page 3	2013년 사무국 보고 - 2013년 연혁 - 2013년 재정결산 보고
page 16	2013활동결산 / 2014활동계획 - 운영회의단 기획 사업 - 상담팀 - 교육사업팀 - 아카이브팀 - 대외협력팀 - 벽장 탈출 지지 모임 기획단 - 웹진팀 - 영상 자료 발굴팀 - 수요일엔 상담소 - 독서소모임
	쉬는 시간
page 30	논의 안건: 단체명 변경의 건
page 39	기타 안건

## 1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연재 기획  
회칙개정팀, 회칙 개정 논의 및 개정안 작성  
<2013 LGBT 인권포럼> 섹션토론 '동성 간 성폭력, 커뮤니티 안에서의 해결 모색하기' 준비 회의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체 회의참여

## 2월

2013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정기총회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2013 LGBT 인권포럼> 섹션토론 '동성 간 성폭력, 커뮤니티 안에서의 해결 모색하기' 발제 및 토론  
<아카이브팀> 기획 및 회의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성소수자 인권 현수막 제대로 걸기를 요구하는 마포구청 앞 1인 시위 참여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마포구청 성적소수자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참여 및 공동 발송  
전주여성의전화 제12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강의

## 3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레주파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체 회의 참여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홈페이지 개선 작업  
양철북 출판사와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정식 계약  
및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마포구레인보우주민연대의 "마포구청 성적소수자 인권침해 규탄 야유회" 참여  
<아카이브팀> 세미나 진행  
전체회의 체제에서 운영회의 체제로 전환

#### 4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레주파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체 회의 참여  
<아카이브팀> 세미나 진행  
대외협력팀, 서울인권영화제 <너를 위해> 인권 해설 기고  
신입회원세미나 진행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의 공동주최로 '성적소수자, 드디어 산부인과를 만나다!' 간담회 진행

#### 5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레주파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비상실무운영체제 결합 및 전체 회의 참여  
<아카이브팀> 세미나 진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레인보우 액션'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학교 내 LGBT 국제 연대 조직 관련 해외활동가 초청 워크숍' 참여  
서울인권영화제 <너를 위해> GV 패널로 참여  
상담소영상소모임 '언니 같이 봐' 진행 - <푸치니 초급과정> 상영

#### 6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레주파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비상실무운영체제 회의 및 전체 회의 참여  
<아카이브팀> 회원 오픈 세미나 진행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 <송지나의 취재파일> 상영 및 끼리끼리 당시 사진 등 전시, 엽서 및 액세서리 판매  
<대구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 엽서 및 액세서리 판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군형법 92조의6 폐지 캠페인'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동성애 선전·교육 처벌법을 통과시킨 러시아 의회와 정부를 규탄하고 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러시아대사관 기자회견' 참여  
전주여성의전화 제3기 인권강사양성과정 강의

## 7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및 LT 진행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레주파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및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워크숍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회 결함 및 전체 회의 참여

<아카이브팀> 회원 오픈 세미나 진행

<강사팀> 세미나 진행

<2013 레즈비언 여름학교> 진행

## 8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레주파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전체 회의 참여

<아카이브팀> 회원 오픈 세미나 진행

<강사팀> 세미나 진행

신입회원세미나 진행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사회 진행

전주여성의전화 제13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강의

## 9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레주파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및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워크숍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전체 회의 참여

<아카이브팀> 회원 오픈 세미나 진행

<강사팀> 세미나 진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

추석 번개 진행 - “가족”을 주제로 프로그램 진행

## 10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도 상담통계자료 작업 및 칼럼 연재 준비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레주과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전체 회의 참여  
<아카이브팀> 자료집 기획 회의 진행  
<강사팀> 세미나 진행  
신입회원세미나 진행  
2013년 10월 소식지 발송

## 11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년 통계, 사례, 칼럼 연재 시작 (총 12회 예정)  
상담팀 신입 활동가 OT 및 신입 활동가 교육 진행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반성폭력 이룸의 “성소수자 성매매 자문위원회” 참여  
레주과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전체 회의 참여  
<아카이브팀> 자료집 기획 회의 진행  
신입회원세미나 진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정책2팀의 ‘서울여성 100인 이야기’ 사업 참여

## 12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주년기념포럼 "레즈비언으로 잘 살아보세!" 개최 및 자료집 배포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2009~2011 상담통계자료 및 칼럼 연재  
상담팀 신입 활동가 교육 진행  
<교사들이 알아야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이드북(가제)> 공동 집필 작업 진행  
레주과 방송 참여 중 [언니의 속사정] 코너에 고정게스트 출연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참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전체 회의 참여  
신입회원세미나 진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실 정책2팀의 ‘서울여성 100인 이야기’ 사업 참여  
‘끼리끼리’ 초대 회장, 초대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상담소 영상자료 재발굴 프로젝트 시작  
송년회 진행

# 2013년 재정결산

## □ 2013년 수입·지출 내역

### [1월]

수입	금액(원)
회원	1,015,00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45,600
싸이월드	1,000
기타	
자료집 및 물품 판매	
예금 이자	
기타	
<b>총 계</b>	<b>1,111,600</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309,340
물품·자료	23,800
구입	
CMS수수료	14,960
사업비	
잡비	4800
<b>총 계</b>	<b>1,352,900</b>

### [2월]

수입	금액(원)
회원	1,115,00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35,400
싸이월드	1,000
기타	
자료집 및 물품 판매	
예금 이자	
기타	
<b>총 계</b>	<b>1,211,400</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267,950
물품·자료	76,000
구입	
CMS수수료	17,740
사업비	
잡비	
후원금 반환	170,000
은행 수수료	2,050
<b>총 계</b>	<b>1,533,740</b>

[3월]

수입	금액(원)
회원	1,030,000
단체	80,000
후원	
해피빈	23,6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1,347
기타	20,000
<b>총 계</b>	<b>1,155,947</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20,580
물품·자료	
구입	34,800
CMS수수료	15,480
등기	1,990
사업비	
잡비	
<b>총 계</b>	<b>1,072,850</b>

[4월]

수입	금액(원)
회원	1,030,00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23,8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기타	-
<b>총 계</b>	<b>1,104,800</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28,840
물품·자료	
구입	42,650
CMS수수료	15,700
사업비	
잡비	
<b>총 계</b>	<b>1,087,190</b>

[5월]

수입	금액(원)
회원	2,285,00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12,9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강의비 후원)	100,000
<b>총 계</b>	<b>2,448,900</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369,880
물품·자료	
구입	70,800
CMS수수료	16,260
워크샵 참가비	45,000
사업비	
대구퀴어문화축	
제-교통비	153,300
서울퀴어문화축	
제-전시물, 기념	817,000
물 제작	
잡비	
<b>총 계</b>	<b>2,334,240</b>

[6월]

수입	금액(원)
회원	1,225,00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20,6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1,818,500
예금 이자	618
기타(양철북 선인세)	250,000
<b>총 계</b>	<b>3,365,718</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42,910
물품·자료	301,700
구입	
CMS수수료	15,700
사업비	
대구퀴퍼물품	95,800
대구퀴퍼후원	100,000
세미나자료집	90,000
잡비	
<b>총 계</b>	<b>1,646,110</b>

[7월]

수입	금액(원)
회원	1,162,00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26,2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여름학교	426,000
<b>총 계</b>	<b>1,665,200</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136,150
물품·자료	84,460
구입	
CMS수수료	17,140
여름학교 다과	38,700
사업비	
잡비	-
<b>총 계</b>	<b>1,276,450</b>

[8월]

수입	금액(원)
회원	1,248,08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29,0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강의료(전주여전)	260,000
<b>총 계</b>	<b>1,588,080</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57,340
물품·자료	207,950
구입	
기타(수수료)	1,500
사업비	
잡비(화장실 수리비)	30,000
<b>총 계</b>	<b>1,296,790</b>

[9월]

수입	금액(원)
회원	1,018,44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27,600
싸이월드	1,000
기타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1,561
기타(레주파장소대여)	25,000
<b>총 계</b>	<b>1,123,601</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128,640
물품·자료	98,700
구입	
기타(수수료)	1,000
사업비	
잡비(소득세)	20
<b>총 계</b>	<b>1,228,360</b>

[10월]

수입	금액(원)
회원	1,117,30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24,000
싸이월드	1,000
기타	90,000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카드취소환급)	3,000
<b>총 계</b>	<b>1,285,300</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49,700
물품·자료	167,810
구입	
기타(수수료)	800
사업비	
잡비(정화조,프린터수리)	112,000
<b>총 계</b>	<b>1,330,310</b>

[11월]

수입	금액(원)
회원	1,147,50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23,1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	-
<b>총 계</b>	<b>1,221,600</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94,920
물품·자료	439,300
구입	
기타(수수료)	2,800
19주년포럼준비	345,500
사업비	
잡비	-
<b>총 계</b>	<b>1,882,520</b>

[12월]

수입		금액(원)
	회원	1,430,580
	단체	50,000
후원	해피빈	30,700
	싸이월드	1,000
	송년회	50,000
자료집 및 물품 판매		196,000
예금 이자		1,884
기타(포럼수익금)		440,000
<b>총 계</b>		<b>2,200,164</b>

지출		금액(원)
	사무실임대료	350,000
	간사 인건비	650,000
운영비	공과금	122,170
	물품 · 자료 구입	19,500
	기타(수수료)	3,500
포럼식비		72,830
사업비	포럼강사료	200,000
	포럼장소대여료	30,000
	배송료	69,760
잡비		
<b>총 계</b>		<b>1,517,760</b>

## □ 2013년 후원자 명단

1월		2월		3월	
가루	여은	가루	우야	가루	원느
공명	예머	그림자	원영	결이	유리
그림자	우야	김김도깡	원느	그림자	은비
김김도깡	원영	나랑	유리	김김도깡	이바나
나랑	원느	나루	은비	나루	이샬
나루	유리	나무	이로운	나무	자몽
나무	은비	냐니뉴	이샬	냐니뉴	저녁
냐니뉴	이로운	뉴인천인	자몽	다자인	적분
뉴인천인	이샬	다자인	저녁	당당	준희
다자인	자몽	당당	적분	레고	지나
당당	저녁	레고	주희코	레니	지연
레고	적분	레니	준희	레즈비언	지현
레니	주희코	로마	지나	로마	찐송
로마	준희	마고	지연	리버	초록
마고	지연	마리나	지현	마고	케이
망토	지원	망토	케이	마리나	토리
명개	처리	명개	토리	마리아	파랑
미타	케이	물통	파랑	망토	한결
민경	토리	미타	한결	물통	히로
바나나	파랑	민경	히로	미타	BAR
바다고양이	히로	민정	BAR	민경	chara
박수지	BAR	바나나	BHJ	바나나	grace
박효주	Chara	바다고양이	chara	바다고양이	HMS
반사	cozy	반사	CHI	반사	JHI
백두	HMS	백두	cozy	백곰돌이	JMA
비비	JMJ	비비	Grace	백두	JMJ
소윤	JSM	뽐므	HMS	선의	JSM
송아지	KD	뽐므	JMJ	소윤	JYH
숨	KHG	선의	JSM	송아지	KD
시로	KYJ	소윤	KHG	숨	KYJ
심플	KYM	송아지	KMJ	심플	KYM
아미고	LHS	숨	KYJ	아미고	LHY
아원	LHY	시로	KYM	아자	LJH
아자	LJH	심플	KYM	에림	LJY
에림	river	아미고	LHY	여은	LSH
SYJ	will	아원	LSH	예머	LSJ
		아자	LYJ	오유나	OSH
		애플	OSH	우야	SJS
		에림	OYN	원영	will
		여은	river		
		예머	SYJ		
			will		
<b>단체</b>		<b>단체</b>		<b>단체</b>	
그루터기		그루터기		그루터기	

4월		5월		6월	
가루	우야	가루	오유나	가루	오유나
결이	원영	결이	우야	결이	우야
그림자	원느	그림자	원느	그림자	원영
김김도깡	은비	김김도깡	유리	김김도깡	원느
나루	이로운	나루	은비	나루	은비
나무	이바나	나무	이로운	나무	이로운
냐니뉴	이삿	냐니뉴	이바나	냐니뉴	이삿
다자인	저녁	다자인	이삿	다자인	자몽
당당	적분	당당	자몽	당당	저녁
레고	준희	랑쵸	저녁	레고	적분
레니	지나	래피	적분	레니	준희
로마	지훤	랭이	준희	로마	지나
리버	찐송	레고	지나	리버	지훤
마고	처리	레니	지훤	마고	처리
마리나	춘년	로마	찐송	마리나	춘년
마리아	케이	리버	처리	마리아	케이
망토	토리	마고	춘년	망토	토리
물통	파랑	마리나	케이	미타	파랑
미타	한결	마리아	토리	민경	한결
민경	히로	망토	파랑	민정	히로
바나나	BAR	물통	한결	바나나	BAR
바다고양이	chara	미타	히로	바다고양이	chara
반사	grace	민경	BAR	반사	Grace
백곰돌이	HMS	민정	chara	백곰돌이	HMS
백두	JHI	바나나	Grace	백두	JHI
비비	JMJ	바다고양이	HMS	비비	JMA
선의	JSM	반사	JHI	뽀므	JMJ
소윤	JYH	백곰돌이	JMJ	사포	JSM
송아지	KD	백두	JSM	선의	JYH
숨	KHG	비비	JYH	소윤	KHG
시로	KMJ	뽀므	KD	송아지	KMJ
심플	KYJ	선의	KHJ	숨	KYJ
아미고	KYM	소윤	KHS	시로	LHY
아자	LHY	송아지	KMJ	아미고	LJH
에림	LJY	숨	KYJ	아자	LSH
에밀리	LSH	시로	KYM	애플	LYJ
여은	SJS	심플	LHY	에림	OSH
예머	will	아미고	LSH	에밀리	SJS
오유나		아자	LYJ	여은	will
		애플	OSH	예머	
		에림	SJH		
		에밀리	SJS		
		여은	will		
		예머			
<b>단체</b>		<b>단체</b>		<b>단체</b>	
그루터기		그루터기		그루터기	

7월		8월		9월	
가루	은비	가루	이로운	가루	윈느
개굴	이로운	개굴	이바나	개굴	유리
거미	이바나	거미	이삼	거미	은비
결이	이삼	결이	자몽	결이	이로운
그림자	자몽	그림자	저녁	그림자	이바나
김김도깡	저녁	김김도깡	적분	김김도깡	이삼
나루	적분	나루	조제	나루	자몽
나무	조제	나무	준희	나무	저녁
냐니뉴	준희	냐니뉴	지훤	냐니뉴	적분
다자인	지나	다자인	진보배	다자인	준희
당당	지훤	당당	찐송	당당	지훤
디아나	진보배	디아나	처리	디아나	진보배
래피	찐송	래고	촌년	래피	찐송
래고	촌년	로마	치세	래고	처리
로마	치세	마고	케이	로마	촌년
마고	케이	마리나	토리	마고	치세
마리나	토리	마리아	파랑	마리나	케이
마리아	파랑	망토	하유	마리아	토리
망토	하유	물통	한결	망토	파랑
물통	한결	민경	현빈	물통	하유
미타	히로	바나나	히로	민경	한결
민경	Amigo	바다고양이	Amigo	민정	Amigo
민정	BAR	반사	BAR	바나나	BAR
바나나	chara	백곰돌이	chara	바다고양이	chara
바다고양이	Grace	비비	Grace	반사	Grace
반사	HMS	빈	HMS	백곰돌이	HMS
백곰돌이	JMA	사포	JMA	비비	JDH
비비	JMJ	선의	JMJ	사랑	JMA
사포	JSM	소윤	JYH	사포	JMJ
선우두빈	JYH	송아지	KD	선의	JSM
선의	KD	슌	KHJ	소윤	JYH
소윤	KHJ	시로	KMJ	송아지	KYJ
송아지	KMJ	심플	KYJ	시로	LHJ
심플	KYA	아랑	KYM	심플	LJH
아랑	KYJ	여은	LHJ	아랑	LSH
아자	KYM	연두	LSH	아자	OSH
약손	LHJ	예머	OSH	연두	river
여은	LSH	오유나	river	예머	SAY
연두	OSH	우야	SAY	오유나	SJS
예머	river	원영	SJS	우야	will
오유나	SAY	윈느	will	원영	YGA
우야	SJS	유리	YGA		
원영	will	은비			
윈느	YGA				
<b>단체</b>		<b>단체</b>		<b>단체</b>	
그루터기		그루터기		그루터기	

10월		11월		12월	
가루	이틀	강하늘	이로운	강하늘	이삿
개굴	자몽	개굴	이삿	개굴	이틀
거미	저녁	결이	이틀	결이	자몽
결이	적분	그림자	자몽	그림자	저녁
김김도깡	조제	김김도깡	저녁	김김도깡	전해성
나루	준희	나루	적분	나루	정다연
나무	지훤	디자인	조제	냐니뉴	조나단
냐니뉴	진보배	당당	준	당당	조제
디자인	찐송	디아나	준희	디아나	종종
당당	촌년	래피	지훤	라바	준
디아나	치세	레고	진보배	래피	준희
래피	케이	로마	찐송	레고	지훤
레고	토리	루나	찬	로마	진보배
류우	파랑	류우	차이	루나	찐송
마고	하유	마고	처리	류우	찬
마리나	한결	마리나	촌년	마리나	촌년
마리아	현빈	마리아	치세	마리아	치세
망토	히로	망토	케이	망토	케이
민경	Amigo	미타	토리	멘탈	토리
바나나	BAR	민경	파랑	미타	파랑
바다고양이	chara	바나나	하유	민경	한결
반사	Grace	바다고양이	한결	바나나	해리포터
백곰돌이	HMS	반사	헌	반사	현빈
비비	JMA	백곰돌이	히로	백곰돌이	히로
사랑	JMJ	백두	Amigo	백두	Amigo
사포	JSM	비비	BAR	비비	BAR
선의	JSY	뽕므	chara	사랑	BHS
송아지	JYH	사랑	CHI(거미)	사포	chara
숨	KD	사포	Grace	선의	CHI(거미)
시로	KHJ	선의	HMS	소윤	Grace
시로	KMJ	송아지	JMA	송아지	HMS
아랑	KYJ	숨	JMJ	숨	JMA
에밀리	KYM	시로	JYH	시로	JMJ
연두	LHJ	아랑	KD	심플	JYH
예머	LJH	애플	KHJ	아랑	KD
오유나	LSH	여은	KYJ	아원	KHJ
우야	OSH	연두	LHJ	애플	KMJ
원영	river	예머	LJH	야니	KYJ
원느	SAY	오유나	LSH	여은	KYS
유리	SJS	우야	OSH	연두	LSH
은비	will	원영	river	예머	OSH
이로운	YGA	원느	SAY	우야	river
이삿		유리	SJS	원느	SAY
		은비	will	유리	SJS
				은비	SWDB
				이드	will
				이로운	
<b>단체</b>		<b>단체</b>		<b>단체</b>	
그루터기		그루터기		그루터기	

### □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와 함께하는 “성적소수자, 드디어 산부인과를 만나다!” 간담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공동주최)

성적소수자들에게 편안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과정들을 산부인과 전문의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MTF/FTM/비트랜스젠더-성소수자 여성의 산부인과 경험에 대하여 사전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소수자들에게 산부인과가 왜 불편한지, 진료과정에서 어떠한 면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공론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들과의 대화를 통해, 산부인과 질환과 진료에 대해 그동안 속 시원히 해소하지 못했던 궁금증들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언니 어렸을 적에: 한국레즈비언 인권운동사 1993-1999” 전시

상담소의 퀴어문화축제 부스를 전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단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창립부터 1999년까지를 1탄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를 2탄으로 나누어 사진과 영상자료를 전시하는 기획입니다. 한 달여간 초동회부터 초기 끼리끼리 활동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순전하-재파-위주로 고심 끝에 전시물을 골랐습니다. 손상된 부분들은 포샵으로 복원하고 비디오테잎 영상자료도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 □ 추석맞이 ‘가족’ 대번개

상담소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가족 실천에 대해 상상해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나는 어떤 명절을 보내고 싶은가?”에 대해 그림을 그려보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족과 미래에 관한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서 저마다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 □ 19주년 기념 포럼 “레즈비언으로 잘 살아보세”

레즈비언인 나와 내 주변의 삶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변호사님께 ‘입양, 상속의 절차와 효력 있는 유언장 쓰기’ 강의를,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토리님께 ‘의료현장에서 LGBT의 의사결정력’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엔 다양한 직업을 가진 20대~40대 레즈비언들과 함께 직업선택의 계기와 직업만족도, 미래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상담팀

작성: 야롱

### 2013년 활동보고

\* 함께 한 사람들: 꼬마, 루나, 사랑, 선의, 야롱, 에밀리, 케이, 토란, 하늘, 고은  
+ 부깽 (홈페이지 관리)

1.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전화상담, 면접상담
  -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매뉴얼, 면접 상담 매뉴얼 제작
  - 상근활동가 전화상담 교육
  - 주 1회 회의 및 상담모니터링
2. 단행본 『무지개성상담소』 발간 작업 참여
  - 우리단체에서 참여한 활동가: 꼬마, 소윤, 야롱, 에밀리, 케이
  - 함께 쓴 단체들: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 마포FM 라디오방송 레주파 L양장점의 “L살롱” 패널 참여
  -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주차 방송
  - 패널: 선의
4. 2009-2011 상담통계, 사례, 칼럼 연재 1~5회차
  - 1회: 2009-2011 상담통계
  - 2회: 대표사례1 - 동성결합/파트너십
  - 3회: 대표사례2 - 가족과의 갈등
  - 4회: 대표사례3 - 학교 내 동성애혐오적 괴롭힘
  - 5회: 대표사례4 - 성폭력
5. 2013-2014 상담활동가 교육(12회차 중 3회차, 6주간 진행)
  - 상담활동가 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커리큘럼 재구성
6. 기타
  - 인터뷰 참여(상담현황과 주요 상담주제, 상담 관련 매뉴얼 등 소개): 동성애자인권연대 상담팀
  - 소수자성매매 간담회 참여(상담사례 및 레즈비언커뮤니티 내 성매매 현황 관련 정보 공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 2014년 활동계획

\* 함께 할 사람들: 꼬마, 루나, 사랑, 야룽, 에밀리, 케이, 토란, 하늘  
+ 부깽 (홈페이지 관리)

1.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전화상담, 면접상담
  - 전화상담 매뉴얼 제작
  - 2014상담카드 제작, 상담카드 작성 매뉴얼 제작
2. 『무지개성상담소』 발간
  - 양철북, 2014월 1월 28일
3. 2009-2011 상담통계, 사례, 칼럼 연재(6~12회차)
  - 6회: 상담사례5-아웃팅 위협
  - 7회: 상담사례6-기혼 여성이반
  - 8회: 상담사례7-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 9회: 상담사례8-교제
  - 10회: 칼럼1-기독교와 동성애
  - 11회: 칼럼2-교제관계 안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들
  - 12회: 칼럼3-상담활동의 의미
  - 연재가 끝나면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
4. 2013-2014 상담활동가 교육(4회차~12회차, 18주)
  - 교육 참여자: 루나, 사랑, 하늘
5. 2012, 2013년 상담통계 배포
6. 상담 FAQ 재정비 & 홈페이지 구성 변경
  - 2006년 버전의 FAQ를 새로 쓰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
  -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재구성

## □ 교육사업팀

작성: 민정

### 2013년 활동 보고

#### \* 함께 한 사람들: 민정, 시로, 아랑, 처리

2월에서 3월으로 넘어갈 즈음 교육사업팀이 위 멤버로 재구성됨.

1. 2012년에 회원 수가 좀처럼 늘지 않았고, 신입회원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리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함. 쿼어 퍼레이드와 여름 학교 등 회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에 상담소 전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계절마다 최소한 한 번씩 신입회원세미나를 가짐.

기존의 신입회원세미나 형식을 가지고 가되, 반성폭력세미나 부문을 좀 더 고민하여 주의 깊게 다루기로 결정함.

| 4월20일-28일

| 봄 세미나

| 8월18일-25일

| 여름 세미나

2. 여름 무렵에 이전 강사팀이 해온 역할, 즉 상담소 내외에서 레즈비언 관련 강의도 준비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것냐는 의견이 제기됨.

그러나 자료 수집과 함께 몇 번의 회의 끝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현재는 상담소 이름으로 나가는 강의를 별로 없는 상태이므로, 보다 필요한 일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함.

3. 또한 세미나의 형식에 대해 의논함. 신입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보다 자주, 필요시에 세미나를 갖기 위해서 이틀에 나누어 하던 세미나를 하루 동안 할 수 있게 구성함. 이는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상담소에 방문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참하는 경우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음. 추석 번개와 상담팀 신입활동가 모집으로 회원이 늘었으므로, 10월과 11월에 나누어 두 번 진행.

| 10월20일

| 가을 세미나1

| 11월23일

| 가을 세미나2

4. 본래 2월 중에 겨울 세미나가 열려야 하나, 참석가능 인원이 적어 다음 회차로 넘기고 총회와 LGBT포럼에 집중하기로 함.

## 2014년 활동 계획

### \* 함께 할 사람들: 민정, 아랑, 처리

#### 1. 신입회원세미나

- 3월부터 격월로 날짜를 고정하여, 신입회원의 날(가제)을 만들 예정임. 지난 해에 비해 2회 늘어나 총 6회를 진행함.
- 기존의 커리큘럼에 변화를 줄 예정.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미나'라는 표현이 주는 부담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형식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할 것임.

#### 2. 외부 강의

- 단기적으로는 8월에 있을 전주여성의전화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장기적으로는 외부 강의에 쓸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강의팀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하고 싶고 또한 할 수 있는 활동가가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임.

## □ 아카이브팀

작성: 처리

### 2013년 활동보고

\* 함께 한 사람들: 시로, 토란, 디아나, 선의, 민정, 아랑, 처리

#### 아카이브팀의 목적

한국 레즈비언상담소 아카이브팀은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의 역사,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레즈비언 권리운동의 흐름을 만들고 열심히 싸워 온 레즈비언 활동가들의 삶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고민들을 풀어내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3년 아카이브팀 활동 내용

1. 2월 20일: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아카이브팀 이름을 <언니 어렸을 적에>로 정하고 활동 방향을 구상하였음.

2. 2월 24: <언니 어렸을 적에> 카페 설립

3. 3월부터 약 2주에 한 번씩 <끼리끼리>, 여타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초기 인권운동과 관련한 글들을 읽는 세미나를 가졌음. 그 글들은 아래와 같음.

- (1) 이해술. 1998.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대해', 레스보스, 그 섬으로의 여행.
- (2) 이해술. 1999.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역사'. 또다른 세상 7호.
- (3) 끼리끼리, 2004, 한국\_레즈비언\_인권운동\_10년사, 진보평론(20), pp.39-68.
- (4) 케이 2004 [차이로 차별견어찬 보랏빛 무지개\_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 나는존재한다, 고로요구할 것이다, 월간말 2004년도 7월호\_통권 217호.
- (5) 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한국의 레즈비언권리운동',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총서 시리즈.
- (6) 김송혜숙 한국 여성동성애자운동과 페미니즘-끼리끼리 활동을 중심으로'.
- (7) 한채윤, 2011, 한국\_레즈비언\_커뮤니티의\_역사, 진보평론(49), pp.100-128.
- (8) 한채윤, 한국동성애 커뮤니티 10년간의 연대기', 버디 20호 봄, pp.16-29.

4. 5월 3일부터 상담소 회원 대상으로 아카이브 공개 세미나 팀원을 모집하였음. 기존의 글과 더불어 '레즈비언권리운동과 여성주의 (레즈비언권리와 페미니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2014년 활동계획

\* 함께 할 사람들: 민정, 아랑, 처리(인원 확충할 계획임)

1. 상담소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 자료 정리 및 복원(현재 진행 중)
2. 영상과 관련된 당시 활동가들과의 인터뷰 진행(2월 6일부터 진행)
3. 소식지에 자료 정리/인터뷰 내용 실을 예정.
4. 이후 소식지에 실은 내용 보충해서 간단한 책자 제작 예정.

## □ 대외협력팀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담당: 야롱)

1. [비상실무운영체제 -> 집행위원회] + [전체회의]
  - 월 1회 집행위 회의, 월 1회 전체회의 진행
2. 2013년 주요 활동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맞이 “레인보우 액션”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한겨레 규탄성명
  - 균형법 92조의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 캠페인
  - 러시아의 ‘동성애 선전 금지법’ 및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과 ‘신성모독 처벌법’ 규탄 기자회견
  -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한 전북교육청 규탄 성명
  -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을 인정하라는 탄원서 서명 운동
  -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주최
  - 커밍아웃 문화제 장소 사용 불허한 마포구청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
  - 2014 LGBT인권포럼 “응답하라 LGBT, 153에서 LTE까지” 기획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담당: 선의, 로마)

1. 매월 정기회의
  - 1.10 선의, 2.5 워크숍 선의 로마, 3.18 선의, 4.9 로마, 5.21 로마, 선의, 6.27 선의, 로마 8.14로마, 선의, 9.24 선의, 11.5 로마, 12.6 로마 참석
2. 2013년 주요 활동
  - 1) LGBT 인권포럼 2월 17일 이야기방. 15:30~17:00  
<가족구성권연구모임>과 함께하는 퀴어가족법률상담소 “사연과 전쟁”
  - 2) 한국일보 인터뷰  
동성결혼 국면으로 가족구성권 이야기로 들어보기 - 몽과 한가람 (한국일보 송옥진 기자)
  - 3) 2013년 연속기획 <가족의 지각변동과 생활동반자관계의 대두>
    - 일시: 2013년 7월 12일 오후 7시
    - 장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4) 2013년 연속기획 두 번째 워크숍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
    - 일시: 9월 4일 오후 7시 반~10시
    -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5) 다양한 가족, 다양한 생애-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걸어온 길 / 한가람
    - 여/성이론 통권 제29호
  - 6) 2014년 1월 <가족의 탐구> 세미나

## □ 벽장탈출 지지모임 기획단

작성: 토론

### I. 프로그램의 목적

한국의 많은 여성 이반들이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와 이성애주의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비밀로 두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의 주요한 측면을 숨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며, 그 결과로 내재화된 수치심과 자기회의감이 들 수 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비밀로 하는 여성 이반들(일명, '벽장')을 위해 그들의 자긍심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소토하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관련 지식을 배우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더욱 편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돕는다.

### II. 본론

#### 1. 프로그램 개발 개요

1) 프로그램명 : 벽장 탈출!

2) 교육대상자 : 자신의 커밍아웃을 지지할만한 주변 지인이 거의 없거나 비교적 늦은 정체화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성정체성과 관련지어 직업 생활 및 가족 문제를 고민하는 성인 여성 이반.

3) 교육시간 분배 : 주 1회, 매 회 2시간 총 10차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4) 교육내용

- ① 안내 및 자기 소개/반성폭력1
- ② 성적 지향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 자신의 성정체성/ 성교육
- ③ 커밍아웃/아웃팅
- ④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
- ⑤ 커뮤니티안에서의 또다른 차별/반성폭력2
- ⑥ 우리나라 레즈비언 권리운동 및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 ⑦ 성정체성과 직업 생활
- ⑧ 성정체성과 원가족
- ⑨ 성정체성과 지지망
- ⑩ 자기성장다짐

5) 수강인원: 최대 10명

6) 수강료: 비회원 10만원(일시불)

회원(CMS 후원 매월 1만원 이상, 1년 정도는 후원을 지속해주세요.)

7) 교육장: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무실

#### 2. 프로그램의 목표

참여한 여성 성소수자들이 성정체성 및 성소수자들에 대해 배우고 자긍심을 기르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3. 참가 양식

참가자 이름, 나이, 연락처, “벽장생활이란 무엇인가? 누가 벽장이반인가? 나의 벽장생활”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올 것. 참가자 수가 많으면 연장자순으로.

4. 수료증-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 발급 고려.

5. 프로그램 일정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과제
1	활동안내 및 자기소개/반성폭력1	집단의 친밀감 형성/프로그램소개	-전체 일정 설명 -반성폭력 1(주의사항, 약속) -자기 소개 -“벽장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 나누기 -인생곡선 그리기 -소감나누기	내가 처음으로 레즈비언 및 성소수자에 관해 보고 들었던 것, 배웠던 것은 어떤 것들인가?
2	성적 지향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자신의 성정체성/ 성교육 * 자료집 준비(상담원 양성 교육자료, 역사속의 레즈비언, 한채윤의 섹스 말하기, 상담소 Q&A)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여러 성적 지향 설명(정체화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기혼 여부, 성경험의 유무와 별개일 수 있다 등등을 강조) -성 정체성을 고민하던 과거/현재의 이야기 나누기 -성교육 -소감나누기	내가 레즈비언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3	커밍아웃/아웃팅	커밍아웃과 아웃팅에 대해 알아본다	-커밍아웃과 아웃팅(커밍아웃, 동성애자로서 거쳐야 할 관문인가?/언젠가 닥칠 지 모르는 아웃팅의 두려움, 사전에 대처 방식 알기) -소감 나누기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의 사례를 기록해오기.
4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 * 호모포비아 어록 * 바성연 활동 실태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에 대해 파악	-호모포비아, 이성애 정의와 자기에 미친 영향 토론 -종교와 호모포비아 -“이성애자 특권” 개념 소개 -소감나누기	온라인 L커뮤니티를 탐방&레주과 방송 듣고 감상 써오기 * 여성영화제 퀴어섹션/레인보우 나잇 참가(4~5주차) * 하반기에는 영화소모임 참여 권유

5	커뮤니티 안에서의 또 다른 차별/반성폭력2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파악 /L커뮤니티 안에서의 기혼이반 혐오, “티부”혐오, 트랜스혐오, 바이혐오들에 대해 파악	-“커뮤니티”란?(활동가 혐오) -L커뮤니티 안에서의 각종 차별에 대해 토론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반성폭력2(커뮤니티 내에서 성향을 나누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제반 문제들에 관한 토론) -소감나누기	-꼬마, '퀴어&정체성에 헌신하기'(빠라) 읽고 <레즈비언으로 사는 삶,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써오기
6	우리나라 L 권리운동 및 L커뮤니티의 역사 * 조이여울, 한채운의 글들(아카이브팀 자료집 참조) * L밴드, 소프트볼.	우리나라 L권리 운동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 파악	-우리나라 L 권리운동 및 L커뮤니티의 역사 알아보기 -‘송지나의 취재파일’시청 -성소수자 단체&연대체들 폭넓게 소개 -소감나누기	* 민우회 자료 이용해서...??? (여성차별 문제 다룰 필요 있음)
7	성정체성과 직업 생활 * 그루터기 등에서 패널 섭외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고용차별과 배우자 혜택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소개	-상담소19주년포럼 자료집 읽기 -직업인의 경험 듣기 -직장생활과 자신의 성정체성이 부딪히는 문제 논의 -소감나누기	누군가에게 커밍아웃하는 편지쓰기 (꼭 부칠 필요는 없음)
8	성정체성과 원가족 * 가족상담 준비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정체성과 관련된 갈등을 되짚어보기/ 가부장주의에 대해 파악	- <b>두번째 과제&lt;자신이 L로서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 느끼나&gt;</b> 를 다시 보고 달라진 것이 없는 지 이야기 나누기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커밍아웃 정도에 대해 스스로의 결정을 정의하고 이해	자신의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기술
9	성정체성과 지지망	고립감에서 벗어나기/자기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찾아나서기.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공유하며 얻는 안정감, 자긍심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지지망 및 대안공동체 찾기/만들기	그룹 경험 동안에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 써오기
10	자기성장다짐	자기성장다짐	-그룹참여의 결과로서의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토론 -마지막 종결경험으로 함께 식사	후속모임 제안/소모임 참여 권유 * 축제&영화제 참가 * 커뮤니티 파티 참가

## □ 웹진팀

\* 활동가 충원중: 소식지/웹진을 꾸리는 데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함께 꾸릴 웹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소 운영(회계보고 및 후원자 명단 등) 보고  
상담소 연중 기획 사업 및 팀별 사업의 진행과정과 성과 보고  
영상 자료 발굴팀의 자료 리뷰  
회원 프로그램의 홍보  
기타

## □ 영상 자료 발굴팀

\* 활동가 충원중: 단체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관심있는 분을 구합니다.

우선 영상자료들을 파일로 변환하는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 요구됩니다. 필요할 경우 자막 처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형태는 주로 비디오이며, 총 1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정리합니다.

자료의 맥락과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리뷰를 써 홈페이지와 소식지로 연재 배포합니다.

회원 대상 소규모 상영회를 엽니다.

영상자료들에 등장하는 끼리끼리 초기 회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2000년 이전 레즈비언 인권운동사로서 단체 역사를 구술사로 남깁니다. (현재 끼리끼리 초창기 임원진 몇 분들과 접촉 중입니다.)

## □ 매주 '수요일엔 상담소' 운영

- 예정 프로그램 1: 영상소모임
- 예정 프로그램 2: 책모임
- 예정 프로그램 3: 꿈작업

## □ 독서소모임(모집중)

두번째 책: '다시 태어나다'(수전 손택. 이후 출판사)

\* 참가자의 의견에 따라 2~4회에 나누어 읽습니다.

첫 모임 일시: 2월 22일(토)~2월 24일(월) 사이로 신청자 의견에 따라 조정

장소: 일시 확정 후 공지(신촌/홍대/합정 근처)

신청 자격: 상담소 정회원, 당일 가입 가능.

신청 방법: 전화 신청(02-703-3542, 월~금 10시~6시), 메일 lsangdam@hanmail.net

이후 읽을 책으로는 '명동 아가씨', '고독의 우물', J. 할버스탐의 번역서 등을 제안하고자 하나, 수전 손택의 다른 저서들 이어 읽기 등으로 이후 선정도서는 모임 참여자들의 제안과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 단체명 변경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며...

2010년 총회 때 처음으로 제안된 후 4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활동가들은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라는 단체명이 그간 단체가 이루어온 성과물들과 단체에 대한 내외부의 기대, 그리고 앞으로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요청을 드렸었고 많은 회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의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간 활동가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위상에 대한 고민과 단체명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운영회의와 각 팀 내에서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활동가들 또한 우리 단체가 여성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큰 뜻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가들마다 구체적인 이유가 다르고, 단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서 ‘운영회의’ 혹은 ‘전체활동가’ 범위의 단일한 입장으로 모아 제안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0년의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마다 활동을 시작한 시기나 경험치는 다르지만, 각각 다른 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면서 회원이나 타단체 활동가, 연구자, 커뮤니티 사람들과 소통하다보니 다양한 맥락의 고민거리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운영회의 참여 활동가 개개인의 의견을 짧게 소개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 상담소 명칭에 관해

토란

의문1: 전화 상담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상담소에 기대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는 대체로 (의료적) 전문지식이다.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인 선생님’을 찾는다. 이는 아마도 ‘한국레즈비언상담소’라는 유사 국가기관의 이미지를 풍기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내담자에게 권위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활동가와 내담자들 모두에게 작용한다면, 과연 시민운동단체로서 국가의 권위에 매번 기대는 방식으로 상담을 처리하는 것이 상담소 전체 운동의 일부로 적절한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의문2: 주변에 기댈 데가 전혀 없어 절박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창구로서 “상담소”라는 표현을 내거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는가? 사회의 변화로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치유나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기 시작한지 몇 년째. 그에 따라 “상담소”의 이미지도 상당히 변화했다.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치유나 힐링이 아니다. 심지어 심리상담도 아니다. 그런데 상담이라는 말이 가지는 대중적 이미지는 이미 그런 추세에 합류했다. 이제 상담은 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전문지식을 통한 치유와 위안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습관적인 실수를 교정받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름을 건 채, 게다가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이 인권운동으로서의 상담으로서 적절한가? 게다가 지난 1년 사이에 LGBT를 위한 상담소 또한 여럿 생겼다. 다른 “상담소”들의 쓰임 가운데서 우리 “상담소”는 우리의 변별점을 드러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 1. 다른 활동가들의 글에서도 누차 등장하는 지적이겠지만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점

1) 상담소라는 이름이 가지는 이미지는 ‘비교적 활동적이지는 않은 활동으로서의 상담’에 묶여있다. 상담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지, 상담소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언가 능동적인, 상담팀 사업과 전혀 별개의 활동을 홍보할 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점, 그건 사실 정말 문제다.

2) 상담팀원들이 상담업무에 짓눌리고 매몰되다시피 해 밖을 내다볼 여유가 없어보인다. 점차 인원 자체가 적어져서 그럴 것이다. 이해는 간다. 하지만 사연을 듣고 상담팀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상담팀원들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커뮤니티” “바깥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운동으로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센터가 되는 것이 상담소의 목적은 아니지 않는가. 객관적으로 상담팀 뿐 아니라 상담소 전체를 보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를 쏟아줄 수 있는 활동가들의 수가 아주 적다. 경제적 상황이야 더할 말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는 엄청난 에너지가 자선사업을 하듯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문제다. 한국의 현실에서 이토록 고급의 정보들이 커뮤니티 내에 충분히 유통되는 길을 찾지 못하고, 벽장 속의 단 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다. 우리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귀들은 레즈비언 공동체 내에서조차 그토록 소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우리가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2. ‘상담’의 한계와 ‘상담소’의 한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시각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면, 개인의 고통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특히나 비밀 유지 조건 하에 지원하는 방식은, 사회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상담소’에서 소위 상담 이후의 단계로 내담자들을 적절히 안내하는 역량을 가졌다고 보기도 약간 어렵고, 그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기도 어렵게 주저앉히는 느낌이 표현 자체에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예컨대 지지모임과 친구가 필요하다는 상담이 들어와도, 상담소 자체가 커뮤니티로서 기능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커뮤니티와도 안정적인 교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 그 고립감에 아무런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지 못할 때. 법률적인 문제를 묻는 상담이 들어왔을 때, 더이상 사건지원팀이 없는 상담소에서 자체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저 피상적인 전략만을 나열할 때. 우리는 그저 다른 곳, 다른 커뮤니티, 다른 변호사를 찾아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는가? 이런 지점에서 상담팀 활동가들은 종종 무기력함을 호소한다. 이런 것이 모두 단체 명칭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분들도 지적하듯, 이름에서 오는 압박에 의해 상담 외 운동이 쉽게 창발하지도 안정화되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운동은 ‘상담’ 프레임에 이중으로 갇혀버렸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 '상담소'라는 명칭이 가지는 이미지가 타 단체와 커뮤니티간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

아랑

2013년 6월 두번의 퀴어 퍼레이드를 참가했다. 서울에서 개최한 퀴퍼와 대구에서 개최한 퀴퍼이다. 두 퀴퍼 모두 상담소의 활동가로서 참가했다. 축제 도중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전문 상담기관인가요?'였다. 질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팜플렛을 드리면 제일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아 끼리끼리!'였다. 또 대구 퀴퍼가 끝나고 타 단체와 같이 뒷풀이를 가졌는데 인사를 하고 밥을 먹는 도중 한 활동가가 '근데 상담소 단체는 활동한지 얼마나 됐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표정 관리가 안되었다.

나는 이 두번의 퀴퍼에서 '상담소'라는 명칭과 그 상징성에 대해 약간의 회의를 느꼈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적어도) 나는 상담소에 가입하고 활동할 때 우리 단체는 인권단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와 우리 활동가들의 생각뿐이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를 끼리끼리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권을 상담해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교육사업팀으로서 신입회원세미나(OT)를 진행할 때나 외부에서 '여기는 무슨 무슨 팀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팀이 있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돌아오는 대답 또한 대부분이 '상담소에서 그런 활동도 해요? 신기하다.'인데 그럴 때마다 꽤나 당혹스럽다.

왜 언젠가부터 상담소의 이미지는 오롯이 상담을 위한 곳이라고 인식되었을까. 물론 활발한 활동가 홍보를 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명칭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담을 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상담소'라는 명칭이 가지는 대표성과 그 대표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곳'이라는 제한적인 인식을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권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여러 단체를 봤을 때 '상담소'는 자신에게 부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물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담소'라는 명칭 안에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과 타 단체, 커뮤니티와의 협동의 가능성을 제시 받지 못하거나 거부 당한 것은 아닐까. 앞으로 상담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라도 상담소 명칭 변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소의 명칭 변경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의 인식이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들과의 소통이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해 본다.

## 상담소의 활동가 재생산 문제와 관련하여

처리

나는 2012년 9월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가입하고 2013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상담소에 가입하기 전부터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의 초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몇 편의 잡지(‘또 다른 세상’, ‘버디’ 등)를 대충이나마 보았기 때문에 내게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보다는 ‘끼리끼리’라는 명칭이 더 익숙했다. 내게 상담소는 ‘상담을 하는 곳’보다는 ‘인권단체’라는 상(象)이 더 컸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입할 당시 나는 상담보다는(상담의 중요성을 격하하는 의미는 아니다) 아카이빙이나 대외 교류, 강의와 같은 활동을 더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 2월, 활동을 막 시작했을 무렵 아카이브팀이 신설된단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게 그 팀에 합류했다.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나는 서툴게나마 한국에서 이루어져왔던 인권운동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생긴 교육사업팀에도 들어가서 한동안 상담소에서 뚝뚝했던 외부 강의에 박차를 가하자고 팀원들과 의기투합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카이브팀과 교육사업팀은 작년 내내 고질적인 활동가 부족 상태에 시달렸다. 아카이브팀에서 공개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일부 회원분들이 호응해주시기도 했지만, 공개 세미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활동가’로서 아카이브팀에 계속적으로 남은 인원은 거의 없었다. 교육사업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중국에 이 두 팀은 말만 교육사업, 아카이브로 나뉘어있었을 뿐, 두 팀을 운영하는 활동가는 3명이 전부인 상황이 되었다. 처음 이 팀들을 만들었을 때 가졌던 포부는 전보다 사그라졌다.

이런 침체적인 상황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나는 2013년 여름학교, 아카이브팀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안면을 튼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아카이브나 교육사업팀의 활동보다는 상담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3년 상담팀 신입활동가 모집에는 이례적으로 13명이라는 숫자가 몰렸다(물론 이 13명이 모두 교육을 수료한 건 아니지만). 교육사업팀과 아카이브팀 모집에서는 볼 수 없는 호응이었다. ‘우리가 뭔가 홍보를 잘못했나?’, ‘활동을 부족하게 한 탓일까?’.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던 중, 나는 퀴어 관련 연구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상담소를 ‘상담을 하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2014년 인권 포럼에서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는 질문에 내가 미처 답을 하기도 전, 그들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정하는 거야?’라고 물어왔다. 그 순간 나는 머리를 세계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 그들에게 상담소가 ‘상담을 하는 곳’으로만 상상된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상담소에서 상담팀 외에 신설되거나 폐지된 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가 확보에 실패했던 건, 어쩌면 ‘상담소’라는 명칭이 은연중에 갖는 생각의 제한 때문이 아닐까. 물론 명칭에만 활동가 재생산 문제를 귀결시킬 순 없겠지만, 상담팀이 아닌 팀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극히 적은

것을 볼 때, 그리고 외부의 시선이(일부 신입회원도 포함하여) 상담소를 ‘상담을 하는 곳’으로만 상상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이 제한된 관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상담소 명칭 변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소는 과연 ‘상담소’라는 명칭 하에서 상담 외 여러 재능을 가진 잠재적인 활동가들이 기량을 펼칠 장을 마련해왔는가? 어쩌면 그동안 상담소는 상담에 매몰되어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배제해온 것은 아닐까? 물론 앞서서도 밝혔듯 명칭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니므로,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활동가들이 확충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상담소가 인권운동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담은 명칭을 전면으로 내세울 때, ‘인권운동’에 담긴 다양한 활동 영역을 상상하며 지금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게 될 거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현 상담소의 활동가 재생산 문제는 그 전망이 보다 밝을 수 있을 것이다.

## 단체 명칭 변경 안에 대하여

민정

상담소의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앞선 세 토론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되풀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글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상담소의 명칭과 관련하여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활동가로서 나의 내력을 밝혀두고자 한다. 나는 2010년도에 상담소에 가입하였다. 활동한지 4년이 조금 넘었으니 증견 활동가인 셈이다. 처음에는 특정한 팀에 소속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쯤 운영회의에 참여하며 큼직한 행사의 준비나 정리를 도왔고, 2012년부터는 대외협력팀에 소속되어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에 상담소의 대표로 참석했다. 그리고 2013년, 작년 한 해 교육사업팀의 팀장과 아카이브팀의 팀원으로 활동했다.

### 1. 외부적인 문제

무엇보다 큰 문제는 1) 성소수자운동진영에서 우리 단체가 고립되기 쉽다는 점, 그리고 2) 커뮤니티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전자는 이미 야롱님과 토란님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넘기고, 후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의, 우리 단체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설문조사라도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먼저 우리 단체의 이름에 있는 ‘상담소’라는 말에 대해서다. 지난 해 상담소는 내부적으로 침체 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여름학교나, 추석 번개, 19주년 행사의 기획 세미나 등을 끝내고 피드백을 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었다. ‘상담소에서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 싶었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상담소에 기대되는, 실제 이전에 존재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반증이다. ‘상담소니까 상담(만)을 할 줄 알았지.’

우리 단체에 대해 커뮤니티 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은 특정한 때에만 상담소에 관심을 갖게 하고, 상담소를 찾게 한다. 본인 혹은 본인의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만, 그러한 필요시에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으로서 방문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지점에 그친다는 데 있다.

내담자로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변화가 우리 단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한다. 또한 상담 받는 것 이외의 어떤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역시 모르며, 종종 그에 대해 관심이 없다. 가능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에 대해 커뮤니티가 보이는 일상적인 무관심은 상담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가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 2. 내부적인 문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다. 애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담에 집중하느라 생기는, 앞선 토론문에 미처 쓰이지 않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모든 내담자에게 균등하게 정성을 다하느라 정작 필요한 일, 즉 긴급한 사건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말로 모든 상담에 똑같은 양의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하는 것일까? 또 하나는 상담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담의 본래 목적은 이미 이야기 되었듯 그것 자체를 하나의 운동으로서, 또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단초로서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담소 내에서 상담은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의 결과를 유통하고 재생산하는 데 실패하니, 상담팀과 타팀의 연계율이 낮아졌다. 함께 기획하는 일이 적어짐에 따라서 상담소 내의 팀들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인력과 재정이 적어 각 팀들 간의 시너지 효과 없이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담소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다.

이상의 두 가지가 내가 느끼는 문제점들이다. 나는 이 문제들이 결국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체는 현재 외부와도, 내부에서도 활동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던 정신을 지켜나가되, 변화시켜야 할 것들에는 과감하게 손을 대야 한다. 그 작업을 통해 우리 단체는 우리 단체와 커뮤니티와의 관계, 우리 단체와 활동가의 관계, 단체 안에서 활동가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의 상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활동가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고하여 새로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할 때다. 물론, 상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것이다.

## 상담팀 활동가로서 단체명 변경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며

작성: 야롱

1. '상담소'라는 명칭과 '상담팀' 활동의 관계에 대한 고민
  - 상담 활동에 대한 상담팀 활동가들의 생각들: 상담을 기반으로 한 활동, 상담으로부터 활동 의제를 발굴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
  - 상담팀의 활동을 지속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 활동으로서의 상담 의미화 작업
  - 앞으로의 상담팀 활동방향에 대한 합의점들: 게시판, 전화, 면접 상담의 체계화. 자료 축적과 배포, 전파하는 작업들.
  - 상담활동이 반드시 '상담소'에서 펼쳐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로 돌아감에 대하여
2. 상담팀 활동이 다른 팀 활동과 유리된다는 비판에 대하여
  - 현재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이 대개 상담팀 활동에 주력하는 상황
  - 선호하는 활동방식과 상담소라는 아이덴티티와의 일치 문제
  - '상담소'로써 상담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와 기대
  - 현 상황이 상담소 전체 신입활동가 유입 및 활동 지속에 미치는 영향
3. 아쉬운 점: '상담소'가 일궈낸 성과 바로보기
  - 상담활동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평가
  - 외부에서 상담소에 갖는 이미지에 대하여
  - 연대와 네트워킹에 대하여

## 기타 안건

- 상담소 운영 및 활동 전반에 관해 제안하고 싶은 안건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연락처**

02-703-3542 (월~금 11:00~18:0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110-110)

**후원계좌**

국민은행 498101-01-114263 (예금주: 이진화)

우리은행 1002-329-844347 (예금주: 이진화)

신한은행 110-173-859050 (예금주: 이진화)

농협 079-12-806362 (예금주: 이진화)

외환은행 630-004684-742 (예금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